

‘서울 킬러’ 광주, 원정 승리로 파이널A 굳힌다



K리그1 30R...FC서울과 2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서 일전
5위 광주, 리그 잔여경기 4...‘승점 6점’ 결린 중요한 승부
강원·서울과 1점차 살얼음...체력 우위 앞세워 고지 선점 목표

광주FC가 좋은 기억을 살려 파이널A 굳히기에 나선다.

광주FC는 21일 오후 7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FC서울을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1 2025 30라운드 원정경기를 갖는다.

광주는 지난 14일 A매치 휴식기 이후 진행된 수원FC와의 원정경기에서 4-2 승리를 거두면서 11승 8무 10패(승점 41)의 성적으로 5위에 자리하고 있다.

10승 10무 9패(승점 40)를 기록하고 있는 서울은 승점 1점 차 7위로 광주를 쫓고 있다.

K리그1 12개 팀은 앞으로 4경기를 통해 상·하위 스플릿 운명을 가리게 된다.

4경기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맞대결은 ‘승점 6점’이 걸린 중요한 승부다.

4위 포항스틸러스는 승점 45(13승 6무 10패)로 승점 4점 차 밖에 있다. 승점이 같은 강원FC가 득점에서 밀려 6위에 자리하고 있고, 7위 서울과도 1점 차에 불과하다. 승점 1점 차 안에서 광주, 강원, 서울이 살얼음 레이스를 펼치게 된다.

원정길에 오르는 광주의 발걸음은 가볍다. 광주는 최근 서울에 강세를 보이면서 ‘서울 킬러’로 통했다.

2023년 9월 17일 30라운드 경기를 시작으로 5경기를 연달아 승리로 장식했다. 지난 6월 13일 홈경기에서 1-3으로 지면서 연승 행진이 중단됐지만 선수단은 ‘승리 기억’을 앞세워 이번 원정을 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 광주는 앞선 29라운드 경기에서 4골을 기록하면서 화력 재점화를 끝냈다.

상대 골키퍼의 자책골로 기록됐지만 오후성이 재치 있는 플레이로 슈팅을 날리면서 상대 실수를 유도했다. 오후성은 변준수의 골도 도우면서 특급 활약을 했다. 조성권과 헤이스까지 득점포를 날리면서 광주는 다양한 공격 옵션을 보여줬다.

후반 교체 투입된 신창무도 백배 크로스로 조성권과 헤이스 골에 기여하는 등 2도움을 기록하며 절정의 컨디션을 과시했다.

골 퍼레이드를 이어간 광주는 2024년 3월 10일 강원전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기분 좋은 4득점을 만들었다.

자신감은 물론 체력 싸움에서도 광주가 앞선다. 서울은 지난 13일 강원FC 원정에서 평평한 승부 끝에 2-3으로 패했다. 이어 16일에는 도쿄에서 경기를 펼쳤다.

서울은 이날 마치다 젤비아를 상대로 ‘2024-25 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리그 스테이지 1차전 대결에 나섰다. 1-1 무승부를 기록하고 복귀한 서울은 21일 광주와의 리그 경기까지 소화해야 한다.

체력적인 우위를 앞세운 광주는 적지에서 승점 3점을 더해 상위 스플릿을 위한 유리한 고지에 오르겠다는 각오다.

광주가 ‘서울 킬러’를 되살릴 기분 좋은 승리를 안고 홈으로 돌아올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가 뜨거운 화력과 자신감을 앞세워 FC서울을 상대로 승점 사냥에 나선다. 지난 14일 수원FC와의 원정경기에서 골을 기록한 변준수(가운데)가 박민혁(왼쪽)과 헤이스와 기뻐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손흥민, 美 첫 헤트트릭 ‘월클 인증’

MLS 레알 솔트레이크 원정 경기
3골 원맨쇼...4-1 팀 승리 이끌어
“아직 다 보여주지 못했다” 자신감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에서 첫 헤트트릭을 폭발한 ‘손세이셔널’ 손흥민(LAFC)이 아직 자신의 진가를 다 모두 보여주지 못했다며 보여줄 것이 더 많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손흥민은 18일 미국 유타주 샌디아고 퍼스트 필드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원정 경기에서 3골을 넣는 ‘원맨쇼’를 펼치며 팀의 4-1 승리를 이끌었다.

전반 3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린 그는 전반 16분에는 페널티 아크 뒤편에서 날카로운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추가골을 기록했다. 이어 후반 37분에는 드니 부앙가와 팀의 세 번째 골을 합작하며 본인의 MLS 시즌 5호 골을 채웠다.

경기 후 화상 인터뷰 취재진과 만난 손흥민은 이적한 이후 첫 헤트트릭을 기록한 소감을 묻는 말에 “제 얘기를 하기 전에 다른 선수들이 잘해준 덕분이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다”며 공을 돌렸다.

그는 “저희(자와 부앙가)가 잘해서 헤트트릭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팀의 다른 선수들이 조명을 받기를 바란다. 특히 수비 진영 선수들이 상대 팀의 크로스와 슈팅을 막는 역할을 잘 해줬기 때문에 칭찬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손흥민은 지난달 LAFC로 이적한 뒤 약 한 달 만에 5골을 터뜨리며, 별다른 적응기 없이 팀에 빠르게 녹아들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LAFC는 손흥민 합류 이후 첫 연승을 거뒀고, 6경기에서 3승(2무 1패)을 기록했다. 6경기 중 5경기가 원정으로 치러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성적이다.

특히 손흥민이 부앙가와 투톱으로 나선 최근 두 경기에서는 차례로 각각 헤트트릭을 기록하며, 공격진의 위협이 한층 살아났다.

손흥민은 “최근 아주 즐거운 경기를 하고 있다”며 “골을 넣든 안 넣든 매 초, 매 순간, 매 훈련과 매 경기가 즐겁다”고 환하게 웃어 보였다.

그러면서 “부앙가는 배울 게 많은 선수다. 제가 팀에 합류한지 얼마 안 됐는데 제게 많이 맞춰주는 덕분에 시너지는 내는 것 같다”고 돌아봤다.



로스앤젤레스 손흥민이 17일(현지시각) 아메리카 퍼스트 필드에서 열린 레알 솔트레이크와의 경기 전 반전에서 골을 넣은 후 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팬들 사이에서 ‘흥부 듀오’로 불리며 주목받는 프랑스 출신 부앙가는 손흥민을 LAFC의 ‘레전드’로 꼽히는 전 멕시코 국가대표 공격수 카를로스 벨라에게 빚졌다.

부앙가는 “쏘니와 함께 땀 흘릴 때면 카를로스와의 호흡을 맞출 때와 비슷하다고 느낀다. 둘 다 파트너로 완벽한 선수”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러 “저랑 쏘니는 서로 잘 보완해주기 때문에 호흡이 정말 잘 맞다고 생각한다”며 “저변에는 제가 헤트트릭을 했고, 이번에는 쏘니가 헤트트릭 했는데, 그가 팀에 온 덕분에 공격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훨씬 많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득점포 가동

무릎 부상을 떨쳐내고 돌아온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조규성(미트윌란·사진)이 1년 4개월 만에 득점포를 가동하고 재기의 신호탄을 쏘았다.

조규성은 18일 덴마크 올보르의 포틀랜드 파크에서 열린 2025-2026 덴마크축구협회컵(덴마크 컵) 3라운드 올보르BK와의 원정 경기에서 팀이 2-0으로 앞서던 후반 34분 췌기골을 터뜨려 3-0 승리와 16강행에 힘을 보탤었다.

조규성은 에드워드 침투피아가 오른쪽 골 라인 근처에서 낮게 깔아 문전으로 보낸 공에 가볍게 오른발을 갖다 대 골망을 흔들었다.

오랜만에 골 맛을 본 ‘까까머리’ 조규성은 동료와 포옹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며 축하를 받았다.

지난해 5월 12일 오르후스와의 리그 경기에서 골을 넣은 조규성은 2023-2024시즌을 마치고 평소 불편했던 무릎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합병증이 발생해 지난 시즌을 통으로 날리고 재활에만 몰두했다.

그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는 미트윌란의 프리 시

조규성, 덴마크컵 올보르BK 원정
1년 4개월만에 골...팀 승리 기여



즌 훈련에 참여하며 복귀를 예고했고, 지난달 17일 수페르리가 5라운드 바일레와의 원정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 그라운드를 밟아 1년 3개월 만에 복귀골을 기록했다.

A매치 기간 휴식 기이던 지난 4일 경기력 유지 차원에서 친선경기 성격의 덴마크 퓨처컵에 나서 45분간 몸을 풀었던 조규성은 이날은 후반 13분 프란클리누스대신 교체로 투입돼 경기가 끝날 때까지 약 32분을 뛰었다.

미트윌란에서 함께 뛰는 중앙 수비수 이한범은 이날 풀타임을 소화하며 무실점 승리에 기여했다.

/연합뉴스

시즌 첫 도움

2026 북중미 월드컵 엔트리 승선을 노리는 젊은 왕이 엄지성(스완지시티·사진)이 시즌 첫 공격포인트를 작성하며 소속팀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2부 리그) 스완지시티의 카라바오컵 16강행에 기여했다.

엄지성은 18일 웨일스 스완지의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EPL) 소속 노팅엄 포리스트와의 2025-2026 카라바오컵(EFL컵) 3라운드에서 0-2로 뒤지던 후반 23분 케머런 버지스의 만회골을 도왔다.

엄지성이 왼쪽 구석에서 차 올린 코너킥은 문전의 버지스의 머리로 정확히 향했고, 버지스의 헤더가 골망을 갈라 엄지성의 도움으로 기록됐다.

엄지성의 시즌 첫 공격포인트다.

이날 왼쪽 측면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엄지성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풀타임을 뛰며 스완지시티의 짜릿한 역전승에 함께 했다.

스완지시티는 전반 15분과 후반 추가 시간 이고르 제수스에게 실점하며 0-2로 끌려갔다. 스완지

엄지성, EPL 노팅엄 포리스트전
팀 0-2 뒤지던 후반 만회골 도움



시티는 후반 23분 엄지성과 버지스의 합작골로 추격의 시작을 알렸다.

후반 추가 시간엔 엄지성이 왼쪽 측면에서 수비 사이로 리암 컬런에게 패스를 내렸고, 컬런의 크로스에 잔비포트 니크가 오른발을 갖다 대 골을 반대쪽

골대 구석에 찔러 넣고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어 경기 종료 직전엔 이선 겔블레이스의 중거리 슈팅이 크로스바에 맞고 나오자 버지스가 그림 같은 왼발 발리슛으로 연결해 스완지시티가 극적인 3-2 역전승을 일궜다.

/연합뉴스